

# 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토착화 양상\*

-김동리의 <무녀도>·<을화>와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을 중심으로

박 남 훈\*\*

차 례

1. 서론-한국소설과 기독교토착화	3.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토착화 양상
2. 김동리의 <무녀도>·<을화>에 나타난 토착화 양상	4. 결론
1) 기독교와 무교 세계의 대립	1) 기독교와 사머니즘의 습합 현상 비판
2) 죽음의 상징적 의미	2) 한국풍습과 순응론적 토착화론
3) 전통지향적 보수주의와 反토착화	3) 구원의 문제와 상황론적 토착화

## 1. 한국소설과 기독교 토착화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인 동시에 토착화의 역사다. 순수한 의미의 복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기독교는 다른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 그 자체를 체화(體化)한다.<sup>1)</sup> 한국 기독교 역사도 100년을 훨씬 넘었다. 따라서 기독교가 한국 문화 속으로 들어와 그 자체를 어떻게 체화해 왔는지를 한국 소설을

\* 이 논문은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0-A22104).

\*\* 고신대학교 외래강사.

1) 기독교대백과사전·15(기독교문사, 1980), 377쪽.

통해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김동리의 <무녀도>와 <울화>,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독교 토착화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자적으로 보면 토착화란 땅에 뿌리를 박게 한다는 뜻이다. 복음 전과과정에서 복음이 거부당하지 않도록 그 문화와의 동일화를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물론 이 동일화 과정에는 결코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sup>2)</sup> 복음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경우 그건 토착화가 아니라 혼합주의(syncretism)가 되고 만다.<sup>3)</sup> 이렇듯 상호 긴장관계에 있는 기독교와 전통문화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토착화 문제로 귀착된다.

선교학적으로 볼 때 토착화는 기독교가 그 나라의 문화적, 종교적 유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파됨을 의미한다.<sup>4)</sup>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전통문화에 적용하는 측면에만 치중할 때 토착화는 과거지향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토착화란 개념을 더 넓은 개념인 '상황화'(contextualization)라는 개념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sup>5)</sup>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본고는 토착화란 용어를 작가가 작품 속에서 전통과 기독교, 현실과 기독교의 관계를 기독교 수용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토착화는 특히 비서구국가의 강한 자의식과 관련된다. 서구 식민주의가 종료된 이후 신생독립 국가들은 기독교를 반민족주의로 간주하게 된다. 민족주의는 문화적 복고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외래문화에 배타적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정책의 한 방향으로 기독교 선교가 이용되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저항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다른 식민지 경험 국가들과는 달리 기독교 토착화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 세기를 훨씬 경과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문학을 산출할만한

2) 기독교날말큰사전(한국문서선교회, 1999), 1209쪽 참조.

3) 한신대학교신학부편, 기독교와 문화(한신대학교출판부, 1988), 60쪽.

4) 전호진, 선교학(개혁주의신행협회, 1993), 152~153쪽.

5) 전호진, 앞의 책, 155쪽.

토양은 갖추어졌지만 그 문학적 소산은 왕성한 편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기독교 윤리가 내면화되지 못하고 민족의식과 기독교 정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미비했으며 또한 작가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 미흡했고 기독교 문화의 토착화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탓을 들 수 있다.<sup>6)</sup>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김동리의 <무녀도>와 <울화>, 황순원의 <음직이는 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작품 속에서 작가들이 토착화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작품의 내용과 구조를 통해 살펴보고 그 양상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김동리의 <무녀도>·<울화>에 나타난 토착화 양상

### 1) 기독교와 무교 세계의 대립

<무녀도>는 1936년에 처음 발표된 이래 두 차례의 개작과정을 거친다. 1936년 원작은 무녀 모화를 중심으로 한 행동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아들 옥이의 행동은 주변적인 의미를 지닌다. 옥이는 살인죄를 짓고 옥살이를 한 뒤 귀가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옥이는 기독교신자가 아니며, 따라서 모화와 기독교와의 대립양상은 치열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결말부분에서 아들 옥이와 딸 남이는 각각 다른 곳으로 떠나며 모화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다.

1947년 개작에서는 옥이가 기독교인이 되어 돌아와 어머니 모화와 갈등을 빚게 되며 결국 모화의 칼에 맞은 뒤 그 후유증으로 죽는다. 개작 역시 모화의 죽음으로 끝난다. 개작에서 주목할 점은 남이가 성경을 갖고 아버지와 함께 떠난다는 사실이다. 1963년 제2차 개작의 결말부에서는 남이가 말을 하는 것이 큰 변화로 나타난다.<sup>7)</sup> 원본과 개작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옥이가 기독교신자로 설정되어 무교의 신봉자인 어머니 모화와 대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작과정을 거치면서 양자의 긴장은 더욱 첨예화되며 비극적 의미 또한 더욱 심

6) 이보영, 「기독교문학의 가능성」, 예술원논문집 20집(1981), 9-11쪽 참조.

7) 김봉균, 한국소설의 기독교 의식연구(민지사, 1997), 62-63쪽.

화되고 있다.<sup>8)</sup> 개작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와 무교는 상호배제의 관계를 갖는다. 모화와 낭이, 옥이가 형성하는 혈연공동체적 유대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해체될 위기에 처한다. 그들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들 사이의 갈등은 더 치열해진다.<sup>9)</sup> 이런 사실을 작가의 의도의 측면과 관련시켜보면 작가는 <무녀도>라는 작품을 통해 기독교와 무교를 첨예하게 대립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무녀도>의 갈등은 돌아온 옥이가 기독교인임이 드러날 때부터이다.

“아니오, 오마니, 나는 동학당이 아닙네다. 나는 예수교올시다.”  
 “그래, 예수도온가 하는 데서는 밥 먹을 때마다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나?”  
 “오마니, 그건 주문이 아니외다. 하나님 전에 기도드리는 것이외다.”  
 “하나님 전에?”  
 모화는 눈을 둥그렇게 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내셨으니까요.”  
 “아아, 너 잡귀가 들렸구나.”  
 모화의 얼굴빛은 순간 퍼렇게 질러었다.<sup>11)</sup>

이러한 대립은 모화가 옥이의 성경책을 불태우고 옥이가 그걸 제지하려다 모화의 칼을 맞는 장면에서 와서 최고조에 이른다. 여기서 칼날은 죽음을 상징하는 불의 이미지다. 모화가 옥이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면 옥이는 모화를 향해 냉수를 끼얹는다. 그러나 물은 도리어 접시의 불질을 일으킨다. 모화와 옥이의 대결은 이렇듯 불과 물의 대립적 성질만큼이나 치열하다.<sup>12)</sup> 이처럼 <무녀도>는 무교와 기독교 사이에 대립구조로 설정되어 있는데 김동리 자신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무녀도>의 여주인공 모화는 샤머니즘의 <신령님>을, 그 아들 옥이는

8) 이동하, 현대소설의 정신사적 연구(일지사, 1989), 83쪽.  
 9) 김봉균, 앞의 책, 70쪽 참조.  
 10) 이동하, 앞의 책, 49쪽 참조.  
 11) 김동리, 을화 외(한국소설문학대계 26, 두산동아, 1997), 247쪽.  
 12) 송하춘, 「인간의 세계 혹은 신들의 세계」, 이남호·이광호 편, 김동리문학앨범(웅진출판, 1995), 77쪽.

기독교의 신의 각각 신앙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계적인 대 종교이지만, 무교는 원시 종교의 일종일 뿐 현실적으로는 미신으로 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신앙이 대동한 차원에서 대결하게 된다.(...)13)

<무녀도>의 개작 과정에 대해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 중의 하나는 작가가 제시하는 기독교가 샤머니즘의 특질로 변질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가가 이해한 기독교는 원죄의식, 십자가의 의미, 종말론적 세계관 등 기독교의 핵심사상과 관련이 없는 기독교, 즉 한국 샤머니즘의 특질로 채워진 기독교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4) <무녀도> 원본에서부터 기독교는 치병과 이적의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도외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15) <무녀도>는 표면적 의미로 보면 무속공동체가 붕괴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심층적 의미로 보면 기독교와 무속의 습합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무녀도>는 성서적 준거를 신유의 은사의 측면만 한정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16) 다시 말해서 <무녀도>에서 모화를 통해 나타나는 무교의 세계는 인간사와 자연사가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한 생명체 속으로 화해하는 세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제시는 김동리의 근원적인 세계관이 토속과 신앙체계인 샤머니즘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 세계에 새롭게 들어온 기독교조차 샤머니즘의 형태로 융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17)

그러나 위의 해석들은 <무녀도>가 단편형식으로서 기독교와 무교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단편은 본래 서정장르적 속성을 띠고 있어서 체험이 예각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장편은 이와 달리 완결된 체계를 복합적, 거시적으로 매우 심도 있게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 단편 <무녀도>와 장편 <울화>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 김동리, 「부림들 골짜기의 고독」, 이남호·이광호 편, 김동리문학앨범(웅진출판사, 1995), 140~141쪽.

14) 김병익, 한국소설과 한국기독교, 김주연 편, 현대문학과 기독교(문학과 지성사, 1984), 70쪽.

15) 이동하, 앞의 책, 51쪽.

16) 김봉균, 앞의 책, 74-76쪽 참조.

17) 김병익, 앞의 책, 74-75쪽 참조.

다시 말해서 단편과 장편의 소설시학적 의의가 다르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8)</sup>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무녀도>가 기독교의 치병과 이적의 측면만을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굳이 기독교의 샤머니즘화의 의도만을 읽어내려는 태도에 대해 회의적이다. <무녀도>에서 치병과 이적은 선교학적 의미에서 접촉점이다. 복음은 인간 실존과 상관없는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간의 요구와 관련되며, 치병도 그런 요구들 중의 하나다. 치병을 중시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기독교의 치병의 측면이 부각되는 건 접촉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 된다.<sup>19)</sup>

이러는 중에 서울서 또 부흥목사가 내려왔다. 그는 기도를 드려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하여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가 병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죄인은 저의 죄로 말미암아 심히 괴로워하고 있사옵니다.”

하고 기도를 올리면, 여자들의 월수병 대하증쯤은 대개 ‘죄씻음’을 받을 수 있었고, 그밖에도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병어리가 말하고, 반신불수와 지랄병까지 저희 믿음 여하에 따라 모두 ‘죄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20)</sup>

인용된 부분에 나타난 기독교만 보더라도 결코 이적과 치병만을 중시하는 ‘샤머니즘화’된 기독교가 아니다. 죄를 회개하고 개인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든 복음이 제시되고 있는 이 문맥을 굳이 ‘샤머니즘화’한 기독교라는 의미로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무교화된 기독교가 그 무교와 대립하고 있다는 식의 해석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무녀도>에서 기독교의 그런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은 모화의 무교가 지니고 있었던 치병과 이적의 능력에 기독교의 속성을 대응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설정일 뿐이다. 즉 <무녀도>는 기독교와 무교를 대립시키려는 작가의 주관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주관적 완결성의 구조로서<sup>21)</sup>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대결을 통하여 변화의 도도한 흐름에 맞서 소멸해가는 세계의 마지막 빛에 매달리는 인간의 운명적 비극성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

18) 이상설, 한국기독교소설사(양분각, 1999), 323쪽.

19) 전호진, 앞의 책, 208쪽.

20) 김동리, 을화 외, 앞의 책, 259쪽.

21) 반성완역, 소설의 이론(심설당, 1985), 61쪽.

으로 봐야 한다.<sup>22)</sup>

단편인 <무녀도>와 장편 <올화>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전히 기독교와 무교가 대립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두 작품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 장르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과 주제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무녀도>의 경우와는 달리 <올화>에서는 기독교 신자인 영술은 죽지만 무녀 올화는 살아 있다. 장르뿐 아니라 내용과 주제도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영술이가 아버지의 성을 찾아 혈통을 확인하게 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혈통을 잇는 것도, 이 땅을 기독교화하는 것도 모두 좌절되고 만다. 그리고 <무녀도>의 경우와는 달리 <올화>에서 제시되는 기독교는 기독교적 본질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다.

또한 <올화>에는 무교세계에 대해 매우 풍부한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주인공 올화의 내력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루어져 독자들로 하여금 무당이라는 특수 계층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며 올화 이외에도 딱지무당이라든지 태주할미와 같은 다양한 성격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무교의 세계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또한 오구긋의 장면을 상세히 보여주며 바리데기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하는 등 무교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한 배려의 흔적들이 작품 곳곳에 나타나 있다.

또한 <올화>에는 <무녀도>에는 없었던 박장로라는 인물을 새로 등장시킴으로써 한국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박장로는 투철한 유교인으로서의 면모를 고스란히 지닌 채 오직 미신 타파라는 현세적 공리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수용하고 있다. 즉 작가는 완강한 전통지향적 보수주의자로서 비전통적인 외래문물의 한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기독교를 가능한 한 전통의 맥락 속으로 끌어들여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23)</sup>

<올화>에서는 <무녀도>가 지닌 기독교와 무교의 대립이 더 심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올화의 무속과 영술의 기독교 세계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된다. 영술의 소원은 생모인 올화를 개종시키려는 것이지만 그 시도는 무위로 돌아간다.

22) 이재선, 한국문학주제론(서강대출판부, 1991), 175쪽.

23) 이동하, 앞의 책, 139쪽 참조.

“오마이, 예수교는 우리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세계적인 종교올시다.”

(…)

“누가 그런 걸 준다 하더노?”

(…)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했다.

“뭐라꼬? 하나님이라고?”

올화는 분개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자기들의 전용어같이 쓰는 하나님이란 말을, 영술이 예수교에 끌어다 붙이는 것이 더욱 해괴하고 망측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술은 여전히 밝고 온화한 목소리로,

“네에, 어무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올시다. 우리 인간과 천지만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올시다.”

했다. 그의 잔잔하고 평화스러운 목소리에는 신념과 긍지가 차 있는 듯했다.

올화는 그러한 아들이 가소로운 듯 히죽이 웃음까지 띠며,

“그런 건 제석님이니 신령님이니 하는 거다.”

하고 일축해버렸다.

“오마니, 제석님이니 신령님이니 하는 것은 모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의 이름이올시다.”

(…)

“뭐라꼬? 우생이라고?”

(…)

“니가 몽달퀴로구나.”

올화는 무서운 눈으로 영술을 쏘아보며 냉연히 선언했다.<sup>24)</sup>

올화와 영술은 혈연적으로는 모자지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이다. 양자의 대립은 다신교적 무속신앙과 기독교 유일신앙간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아들 영술이 어머니 올화의 칼에 찔려 죽게 만들 정도로 가열하다. 이러한 대립구조의 설정은 작가가 그만큼 기독교 토착화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를 소재로 한 한국소설 중에 토착화 문제에 대해 이렇게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소설의 형식이 다른 형식들과는 달리 선형적 고향상실성의 표현이라는<sup>25)</sup>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올화>에 나타난 이러한 대립적 구조의 설정은 그만큼 김동리가 전통적 보수주의에 입각하여 무교적 세계관을 일종의 선형적 고향성으로 간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4) 김동리, *올화* 외, 앞의 책, 37쪽.

25) 반성완 역, 앞의 책, 47쪽.



## 2) 죽음의 상징적 의미

육이와 모화의 대립은 결국 죽음으로 종결된다. 김동리 소설은 죽음에 대해 구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죽음에 대해 자의식적이다. 그러나 김동리의 죽음은 종말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인 실재에 닿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sup>26)</sup> <무녀도>의 경우 육이는 모화의 칼에 죽게 되고 모화 또한 죽음을 맞는다. 이들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모화의 죽음은 무속공동체의 붕괴를 상징하며 육이의 죽음은 기독교의 확장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모화를 중심으로 보면 <무녀도>는 비극적 구조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비극의 초극이며 육이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에 찬 순교라는 해석이 그러하다. 그러나 본고는 <무녀도>가 기독교의 승리와 무교의 패배를 보여준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육이의 죽음과는 달리 모화의 죽음은 작품의 결말을 지배하는 주요 모티프다. <무녀도>에서 모화의 죽음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화의 죽음의 의미는 작가에 의하면 “그의 전 생명이 시나윳가락이란 울동으로 화하고 그것의 울동화란 곧 자연의 울동으로 귀화 합일한다”는 뜻으로 설명된다.<sup>27)</sup> 모화의 죽음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곧 한편으로는 장렬한 투쟁과 저항에 뒤이은 처절한 죽음, 즉 비극적 죽음의 성격을 지닌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연의 울동 속으로 조화롭게 합일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다.<sup>28)</sup>

모화는 냇대를 따라 점점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갔다. 옷이 물에 젖어 한 자락 몸에 휘감기고 한 자락 물에 떠서 나부꼈다.

검은 물은 그녀의 허리를 잠그고 가슴을 잠그고 점점 부풀어 오른다...

그녀는 차츰 목소리가 멀어지며 넋두리도 허황해지기 시작했다...

모화의 몸은 그 넋두리와 함께 물 속에 아주 잠겨 버렸다.

처음엔 꽤자 자락이 보이더니 그것마저 잠겨 버리고 냇대만 물 위에 빙빙 돌다가 흘러내렸다.<sup>29)</sup>

26) 조희경, 김동리소설연구(국학자료원, 1999), 180쪽.

27) 김동리, 「신세대의 정신」, 문장(1945. 5.), 91쪽.

28) 이동하, 앞의 책, 55쪽.

29) 김동리, 을화 외, 앞의 책, 264~265쪽.

이렇게 모화는 물을 통해 죽음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녀의 죽음은 현실세계와의 단절이지만 자연이라는 점에서는 합일이며 엑스타시이다.<sup>30)</sup> 천지간의 윤희한 존재인 인간의 무한을 향한 이념이자 구경적 삶의 형식으로서의 문학으로서 모화의 죽음은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sup>31)</sup>

이처럼 <무녀도>는 상반된 세계끼리의 근원적인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어 결말에 오면 육이와 모화 모두 죽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다르다. 모화의 죽음에는 앞서 지적된 것처럼 김동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구경적 삶의 형식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또한 걸이야기에서 낭이가 모화의 세계를 그리는 스토리를 삼입함으로써 <무녀도>의 세계는 끝까지 살아 남아 있다.<sup>32)</sup> 기독교와 무교가 대립하는 속이야기를 받쳐주고 있는 걸이야기 속에서 무교의 세계만이 남게 되고 끝내 기독교의 세계는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울화>의 경우는 <무녀도>의 양상과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영술은 3일을 굶은 채 ‘울화무’를 추던 어머니 울화가 성경책에 붙인 불을 끄려다가 칼에 가슴을 찔러 죽는다.

영술은 우선 성경책의 불을 끄려고 했다. 물그릇은 왼쪽 부뚜막의 소반 위에 놓여 있었지만, 두 눈이 허영게 뒤집힌 울화가 그 앞을 가로막은 채,  
 “엇쇠, 물러가라 불귀신  
 엇쇠 물러가라 예수 귀신.”

목청껏 외치며 식칼을 휘휘 내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영술의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것도 두려울 수 없었다. 그는 오른쪽 부뚜막으로 뛰어들어 성경책을 집어 들려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다. 그러나 기어이 그것을 집어 든 그는, 그것을 솥뚜껑 위에 철거덕 놓아버리고 말았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이미 성경책이 아닌 불덩어리였으나, 뜨거운 것은 손인지 가슴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식칼이 꽂힌 채, 옷 위로 시뻘건 피가 번지기 시작했고, 울화는 부뚜막 아래서 그의 상체를 열째안았다.<sup>33)</sup>

<무녀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울화>에서도 기독교와 무교의 대립은 결

30) 송하춘, 앞의 글, 앞의 책, 75쪽.

31) 김윤식, <무녀도>에서 <울화>에 이르는 길, 김동리, 울화 외, 앞의 책, 600~601쪽.

32) 송하춘, 인간의 세계 혹은 신들의 세계, 이남호·이광호 편, 앞의 책, 66~67쪽.

33) 김동리, 울화 외, 앞의 책, 195~196쪽.

국 아들의 죽음으로 귀결된다. 영술의 소원은 생모인 을화와 이복 누이 월희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었지만 이 노력은 결국 그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좌절되고만다. 또한 영술이 생부를 만나게 되고 생부 가문에 적을 올리려고 했던 것도 수포로 돌아간다. <무녀도>에서는 모화도 죽지만 <을화>에서는 무녀 을화는 죽지 않는다. 작품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종이등'의 상징성 또한 김동리가 그만큼 완고하게 무교적 세계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장치다. 그 '회썬 연 등불'은 근대의 물결 속에서 급격히 그 기반을 상실해가고 있는 무교를 상징한다. 비록 분명치 않은 회썬 연 불빛이긴 하지만 그 등불은 인간의 이해의 저편에 있는 신비를 의미하는 동시에 작가의 완고한 전통적 보수주의의 세계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sup>34)</sup> 이것은 <무녀도>에서 육이와 모화가 다 죽지만 모화의 세계가 낭이의 그림을 통해 남게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김동리가 무교와 기독교의 대립구도 속에서 결국 무교의 세계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동리는 이러한 죽음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궁극적으로 무교의 세계의 견고성과 지속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토양에 기독교 세계가 착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反토착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3) 전통지향적 보수주의와 反토착화

<무녀도>와 <을화>를 통해 김동리는 전통의 관점에서 외래 종교인 기독교를 철저히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전통지향적 보수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전통지향적 보수주의란 현대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 것이다. 즉 전통적인 한국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작품 속에서 한국 전통 사회의 정신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구현하고자 하며, 그럼으로써 이른바 진보주의자들의 문학과 대립적인 자리에 서고자 하는 태도 내지는 세계관을 가리킨다.<sup>35)</sup>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의 문화적 유산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문

34) 신동욱,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비극적 삶의 인식, 유기룡편, 김동리(도서출판 살림, 1996), 263쪽.

35) 이동하, 앞의 책, 8쪽.

화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이 되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화복원운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복고주의가 외래문화에 배타적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sup>36)</sup> 작가 김동리도 이 두 작품의 창작 동기를 ‘민족적 현실’과 ‘세기말의 허무와 절망’에 두었음을 밝히고 있다. <무녀도>가 집필되던 1936년 당시 침략자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맞서 ‘민족의 근원적인 일’을 추구하고려고 했고 바로 그 대안이 무교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무교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확보하려던 작가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동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고 미션계 학교인 계성학교와 경신고보를 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독교사상에 일찍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sup>3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통적 보수주의의 입장에 서서 민족적 정체성의 근거로 무교적 세계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특히 일제 강점기에서 일종의 저항의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8)</sup>

### 3.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토착화 양상

#### 1)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습합 현상 비판

<움직이는 성>에서 작가는 샤머니즘적인 인간상인 민구와 합리주의적 성격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유랑민 근성을 지닌 준태와 실천적 크리스찬의 면모를 보여주는 성호를 각가 대비적으로 등장시켜 어떻게 기독교적 인간상이 진실치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있게 보여준다.<sup>39)</sup>

이 소설에는 여러 곳에서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습합현상이 비판적으로 제시된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무속 세계관에 속하는 변씨, 명숙, 돌이엄마 등의 삶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점은 김동리나 한승원의 작품에서

36) 전호진, 앞의 책, 154~155쪽 참조.

37) 소재영외 3인, 기독교와 한국문학(대한기독교서회, 1990), 125~126쪽.

38) 이동하, 앞의 책, 43쪽.

39) 소재영외 3인, 앞의 책, 128쪽.

샤머니즘이 긍정적이며 신비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sup>40)</sup> 이 작품은 샤머니즘을 극히 혐오하면서 기독교 행위양식의 전범을 제시하려는 작가의 상상력을 보여준다. 특히 표면적 주제로 이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움직이는 성>이다.<sup>41)</sup>

민구는 무속연구를 하는 세례교인이다. 그는 부호인 한 장로의 딸과 약혼한 사이다. 그는 무당 번씨의 도움을 받아 많은 무속자료를 수집하고 무속 세계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며 후에 번씨와 변태적인 관계까지 맺게 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돈 많은 장인의 회사에 들어간다. 그는 세속적인 영달을 추구하는 실리주의적인 인물이다. 그는 현실적인 상황과 최대한 타협하면서 자기기만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환상적으로 충족시키는, 타자가 원하는 존재로 전략해버린 시장지향성의 인물로서<sup>42)</sup> 작가가 이 소설에서 가장 냉정하게 그리고 있는 인물이다.<sup>43)</sup>

성호가 시무하던 교회의 최장로는 기독교의 샤머니즘화를 지나라하게 보여 주는 인물이다.<sup>44)</sup> 그가 기독교를 믿게 된 동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복을 받기 위해 이름을 개명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크흠, 목사님 어떻습니까, 개명하는 건 미신의 것이 아니겠지요?”  
최장로가 화제를 바꿨다. “이름 고치는 것 말입니다, 크흠.”

“이름을 고치다니 누구의 이름 말씀인가요?”

“제 이름입니다. 성서에두 이름을 고친 예가 많지 않아요? 크흠.”

“뭐라구 고치셨나요?”

“영흥이라구 고쳤습니다. 길 영자에 크흠, 일어날 흥흥잡니다. 어떤 작명 잘하는 노인이 지어주었는데 지금까지의 춘식이란 이름, 봄 춘춘자 심을植자는 젊어선 괜찮지만, 크흠, 노년엔 좋지 않답니다. 이번에 새루 고친 내 이름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루 바꾸구, 시몬이 베드로란 이름으루 바꾼 거나 마찬가지로지, 크흠.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한 부분만 고치지 않

40) 신익호, 기독교와 한국소설(한남대학교출판부, 1994), 160쪽.

41) 소재영의 3인, 앞의 책, 128쪽.

42) 김운정, 한국현대소설과 현대성의 미학(국학자료원, 1988), 202쪽.

43) 이정숙, 앞의 책, 221쪽.

44) 이정숙, 자아인식에서의 여정, 구인환 외, 한국장편소설연구(삼지원, 1989), 218쪽.

구 아주 같아버렸으니까요, 크흠.”<sup>45)</sup>

최장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과 동일시한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러한 샤머니즘화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소설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런 사람들두 따지구 보면 하나님의 진의를 받아들인 게 아니구 어떤 실리면만을 받아들이구 있는 게 아닐까요. 이룰테면 소원성취나 हे주는 하나님, 혹은 천당에나 가게 해주는 하나님, 혹은 몇 번 죄를 지어두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는 하나님으루서 말입니다.”<sup>46)</sup>

“교리의 참다운 뜻을 터득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무슨 실리적인 것을 바라구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같애. 마치 샤먼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듯이 말야.”<sup>47)</sup>

앞의 인용은 준태가 기독교의 샤머니즘화 현상에 대해 예리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며 뒤의 인용은 민속연구가 민구가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을 꼬집고 있는 내용이다. 작가는 이런 습합 현상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암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토착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혼합주의적인 토착화를 경계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작가는 한국인은 영원에 대한 갈구, 구원에 대한 소망을 차단시킨 채 폐쇄적인 현세의 삶 속에서 지주 없이 떠돌고 있으며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샤머니즘 신앙이라고 본다. 이처럼 체질적으로 전혀 상반된 기독교마저 샤머니즘 세계로 용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극히 탁월한 기독교적 착상이다. 기독교에 대한 이같은 본질적인 접근은 30년대 김동리식의 기독교 이해 수준을 이미 극복하고 있음을 입증한다.<sup>48)</sup> 황순원이 샤머니즘에 대해서 철저히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독교만을 진리로 보고, 타종교는 거짓으로 보는 ‘극단적 대치’(radical displacement)라는 토착화의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sup>49)</sup>

45) 황순원, 움직이는 성(문학과 지성사, 1995), 151쪽.

46) 앞의 책, 52쪽.

47) 앞의 책, 52쪽.

48) 김병익, 앞의 글, 앞의 책, 78~79쪽,

## 2) 한국풍습과 순응론적 토착화론

이 소설에서 가장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성호는 목사이다. 그는 크리스천 주보에 <우리나라 풍습과 기독교>라는 글을 발표한다. 그 글의 요지는 기독교가 우리나라 풍습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다. 즉 관혼상제의 상례와 제례를 미신 행위로 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조상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 상례와 제례를 지내는 것이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상례나 제례를 미신으로 규정한 것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미개 민족으로 본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는 이 글 속에서 주장한다. 민구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전대 기독교가 우리나라 풍습에 대해 너무 지나친 처단을 내렸다든 거야.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관혼상제의 상례와 제례만 해도 그걸 미신의 행위루 봐선 안된다는 거야. 조상에 대한 공경의 표시루 상례와 제례를 지내는 거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건 아니지 않느냐 거지. 물론 상례나 제례의 번거로운 절차같은 걸 형편에 따라 고쳐나간다는건 딴 문제구 말야. 아마 상례나 제례를 미신으로 규정한 건 처음 서양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미개민족으로 본데서 비롯됐을 거라는 거야. 서양사람 자기네의 의식하구 다르다구 해서 우리나라 사람의 고유한 풍습을 무시해버려서는 안된다는 거지.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시정해야 한다는 거야. 옳은 견해지 뭐야. 그치만 그친구 입장으로론 좀처럼 힘든 주장을 했어.”<sup>50)</sup>

성호의 논리는 상례나 제례를 미신으로 규정한 이유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미개민족으로 본데서 비롯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서양의 의식하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의 고유한 풍습을 무시해 버려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선교지의 전통적 예절과 풍습과 관례가 뚜렷하게 신앙과 전전한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을 바꾸려 해서는 안된다는 순응설(accomodation)에 접근하고 있다. 이 원리는 토착문화를 복음에 적용시키거나 개혁한다는 의미보다는 복음을 토착문화에 순응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토착화 내지 이교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sup>51)</sup> 성호의 이러한 논리는 한국 전통

49) 전호진, 앞의 책, 169~170쪽.

50) 황순원, 앞의 책, 148쪽.

과 기독교의 관계와 관련된 토착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노회에 소환된 성호는 노회 목사들과의 대화에서도 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 풍습에 관한 기독교의 한계를 밝혀 두기 싶습니다. 말하자면 교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풍습에 기독교가 지나친 간섭을 말아야 하겠 다는 겁니다.”

(…)

“제사 지내는 게 우리 기독교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어쨌서 그렇습니까. 우상과 미신을 생계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 왜까?”

“제사는 조상에 대한 추모입니다. 어떤 신에 대한 신앙행위는 아닙니다.”

“아 그럼 혼백상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구, 그러구설라니 죽은 사람의 혼이 와서 먹으라구 음식을 채려놓은 것도 우상이나 미신을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건 추모의 한 형식으로 봐야겠쎬. 아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라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음식을 마련해놓는 게 아닐까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제사를 금해왔는데 이제와서 그걸 타파하겠다는 건 이단의 것이 아니웁니까?”

(…)

“다시 본문제루 돌아가서 윤목사에게 물겠습네다. 제사는 물론 혼인 때 사주나 궁합을 보는 것도 교회에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글에 쓰여져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라구 금하자면 혼인 후 폐백 때 신부 치마폭에다 대추를 던져주면서 소생이 많기를 축원하는 것도 미신의 것이라 해서 안된다고 해야 할 거구요, 돌잔치 때 상위에 실타래니 책이니 연필이니 돈이니 하는 것들을 놓고 어린애에게 집게 하는 것도 미신의 것이라 해서 안된다고 해야 겠쎬.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이것두 해서는 안된다, 저것도 해서는 안된다, 하구 안된다는 걸 많이 제정해놓을수록 자연 그걸 범하는 율이 많아질 게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범한다는 데에 타성이 생겨 정말 신도루서 범해서는 안될 것까지 범해버리기가 쉽쎬.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엔 외국에선 볼 수 없는 별의별 법률이 범람해서 그 하나하나를 다 지킬 수 없다보니 그만 면역이 생겨서 꼭 지켜야 할 것마저 안 지키게 되는 것과 흡사합니다. 결국 해서는 안된다는 규제를 많이 만들어놓을수록 신도들의 죄의식을 마비시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보담은 신도들루 하여금 어떻게 하면 기독교 정신

51) 전호진, 앞의 책, 157쪽 참조.



으로 선을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악과 싸울 수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해야 할 줄 압니다.”

“요컨대 윤목사가 쓴 글을 한 구절두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니웁까. 그럼 알았습니다.”<sup>52)</sup>

한국풍습에 대해 기독교가 지나친 규제나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는 윤성호의 주장은 제도권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다. 초기 한국 천주교인들의 조상제사거부는 유교사회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도전으로 간주되면서 1791년 이른바 신헌박해를 전후하여 무려 1만명에 가까운 순교자들을 낳았다.<sup>53)</sup> 나중에 천주교는 조상제사를 허용하는 순용론적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개신교는 조상제사 문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제사는 단순한 풍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배의 의미를 갖는다. 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조상신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경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 작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단지 풍습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기를 성호의 글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황순원의 이러한 토착화론은 60년대 한국적 기독교 토착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기독교를 무조건 서구의 이식화에 따른 맹신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수용하지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sup>54)</sup> 그러나 황순원이 이런 논리를 통해 보여주는 신관은 분명 인간중심적이다.<sup>55)</sup> 즉 신중심적인 기독교 교리의 측면이 배제된 채 극히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토착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황순원은 인간중심적 신관에 입각하여 순용론적 토착화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의 토착화론은 토착화 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신학적 복합성에 비해 보면 너무나 단순한 논리에 그치고 있지만 한국 소설에서 기독교 토착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52) 황순원, 앞의 책, 219~220쪽.

53) 박종천, 「조상제사와 토착화문제」, 장상·소홍렬 편, 신학하며 사랑하며(문학과 지성사, 1996), 340쪽.

54) 신익호, 앞의 책, 150쪽.

55) 장현숙, 앞의 책, 363쪽 참조.

## 3) 구원의 문제와 상황론적 토착화

<움직이는 성>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흐름은 죄의식과 구원의 문제이다. 작가가 이 소설에서 샤머니즘에 천착하고 있는 것은 근원적인 죄의식을 철저히 해부하기 위한 수단이며 더 나아가 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려는 노력의 한 방편이다. 그가 추구한,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는 기독교문학의 본질이다.<sup>56)</sup> 죄의식에 대한 이러한 천착은 이미 <카인의 후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카인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인용한 것 자체가 그의 문제의식의 근원을 암시한다. 이 소설에서 그는 인간은 원죄적으로 살인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해방 전후사의 혼란기에 한 지식인이 체험했던 고뇌와 종교적 극복 문제를 소설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인간접목>과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는 6.25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죄의식과 종교적 구원의 문제로 심화시키고 있다. 작가는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 유리와 같이 순수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도 없이 파멸해가는가를 그려준다. 그리고 <인간접목>에서는 자신의 죄의식을 속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득력있게 제시한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에서 동호가 자살하는 것은 자신의 순수가 더럽혀졌다는 점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며 현태가 전쟁이 끝나고도 그렇게 방황하는 것은 전쟁 중에 죄없는 여인을 살해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sup>57)</sup> 이러한 일련의 죄의식과 구원의 문제에 대한 탐색은 <움직이는 성>에 오면서 민족 전체의 아이덴티티 근원을 살피려는 노력으로 확대되고 있다.<sup>58)</sup>

한민족 전체의 아이덴티티 근원의 탐색과 관련하여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준태다. 그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유랑민 의식’을 갖고 있다. <움직이는 성>에서 준태가 얘기하는 ‘유랑민 근성’이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다급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면 기독교건 불교건 샤머니즘이건 닥치는 대로 의지하는 풍토, 즉 정착성을 잃은 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정신풍토를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인간 존재의 심연에 있는 근원적인 갈등을 의

56) 소재영외 3인, 앞의 책, 128~129쪽.

57) 소재영외 3인, 앞의 책, 129쪽.

58) 한승옥, 한국현대소설과 사상(집문당, 1995), 219~220쪽.

미한다. 즉 항상 정착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하나의 실체로서의 '성'(城)인 인간이 갖게 되는 인간 존재에 근원적인 방황을 의미하는 것이다.<sup>59)</sup>

준태는 자기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한국인의 속물주의, 천박성, 임시 번통주의, 부정직, 불합리성을 모두 한국 민족 고유의 숙명적 특질로 파악한다. 그는 그가 말하는 '유랑민 의식'을 도처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극도로 비판하고 혐오함으로써 그것과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도 아들 낳고 딸 낳고 집짓고 재산 모으는 재미로 사는 유랑민의 생활을 혐오하는 인물이다.<sup>60)</sup> 그러나 준태의 삶은 이 유랑민 의식의 굴레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그의 의지는 자기파괴의 양상으로 나타나며<sup>61)</sup> 일종의 자학적인 내지는 운명론적 태도를 지닌 피학적 지식인상으로 나타난다.<sup>62)</sup> 그의 삶 자체가 '유랑민 의식'의 희생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한국민족의 유랑민 의식을 극복하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개인의 윤리적 결단을 내세운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의 내면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유랑민 근성에 대해 성호가 내세우는 대안은 개인적 윤리에 바탕을 둔 신앙이다. 죄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장편소설을 전개해 왔던 작가는 <움직이는 성>에서 외서는 구원의 문제를 행동하는 양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sup>63)</sup> 이 소설에서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행동하는 인물들로는 교역자인 윤성호와 그의 주변 인물들인 홍여사, 명숙, 최장로, 한장로, 신복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오직 성호만이 신앙적 갈등과 회의를 통해 자신의 신앙관을 정립하는 긍정적 인물로 부각되고 그 외 다른 인물들은 모두 신앙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제시되고 있다.<sup>64)</sup> 샤머니즘의 기복주의적 경향이 한국 기독교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두 따지구 보면 하나님의 진의를 받아들인 게 아니구 어떤 실리면만을 받아들이구 있는

59) 장현숙, 앞의 책, 358~359쪽.

60) 이상섭, 「유랑민 근성」과 「창조주의 눈」, 황순원, 앞의 책, 354쪽 참조.

61) 김윤정, 앞의 책, 202쪽 참조.

62) 신동욱, 앞의 책, 213쪽.

63) 소재영 외 3인, 앞의 책, 131쪽.

64) 신익호, 앞의 책, 148~149쪽.

게 아닐까요. 이를테면 소원성취나 해주는 하나님, 혹은 천당에나 가게 해주는 하나님, 혹은 몇 번 죄를 지어두 회개만 하면 용서해주는 하나님으로서 말입니다.”라고 말하는 준태에 대해 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자에 따라서는 그런 경향이 전혀 없다구는 할 수 없죠.”  
 성호가 조용히 준태와 민구 둘에게 말을 건넨다.  
 “제가 보기에 그런 신앙은 정신적으루 뿌리 박지 못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말하자면 유랑민 근성을 면치 못한 신앙이라 할까요.”  
 “그러나 신앙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언젠가는 올바른 신앙이 뿌리박힐 겁니다.”<sup>65)</sup>

올바른 신앙이 뿌리내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은 성호 자신이다. 성호는 과거 홍여사와의 불륜을 참회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빈민선교의 현장에 뛰어들게 된다.

작가는 <움직이는 성>에서 준태의 유랑민 근성이 긍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한 방안으로서 기독교를 제시한다.<sup>66)</sup> 성호가 바로 그런 긍정적인 인물로 제시된다. 성호는 죄의식으로 인한 번뇌를 통해 유랑민 근성을 면치 못한 기독교인들이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형상화 과정을 보여준다. 미련 없이 목사직을 사퇴한 그는 두 가지의 길을 걷는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낀다. 그는 삶과 더불어 죽음을 신과 더불어 악까지도 신의 것임을, 자기가 사랑해야 할 것임을 각성한다. 이 각성은 기독교적 인식의 절정이며 이 세계의 카오스에 대한 포용인 동시에 고통스런 삶에 대한 윤리적 결단이다. 둘째로 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복음의 전도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 그의 태도는 사회구원을 개인구원보다 우선시하는 실천신학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67)</sup> 이런 측면에서 <움직이는 성>은 현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중시하고 복음을 그 상황과 결부시키려는 상황화의 논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빈민선교를 통해 성호는 빈민촌의 가난과 고통을 몸소 안고 싸워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단 그의 빈민선교는 정치투

65) 황순원, 앞의 책, 52쪽.

66) 김병익, 앞의 글, 앞의 책, 82쪽.

67) 신익호, 앞의 책, 150쪽.

쟁적인 실천신학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는 개인윤리적인 결단과 실천을 통해 신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성호는 이같이 열악한 생존의 조건과 싸우면서 민중의 세속적 욕망과 무속지향적 기질, 명숙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무속신앙과 대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세속화된 교회, 샤머니즘에 물든 기독교의 융합주의의 앞에 서 있다.<sup>68)</sup>

개인윤리적 결단과 실천에 바탕을 둔 성호의 기독교 신앙은 이 소설의 중심 주제로 알려져 있는 한국인의 유랑민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민구나 최장로와 같은 인물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와 무속의 습합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면에서도 가치를 지닌다.

황순원은 서북지방의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 적절하게 규제된, 그러나 스스로를 크리스천으로 표명하지 않은 작가이다.<sup>69)</sup> 그러나 그는 기독교적 풍토 속에서 자라나고 교육받은 김동리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움직이는 성>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의 토착화론을 보여준다. 황순원이 보여준 세계는 비록 그가 표면적으로는 크리스천이 아닐지라도 내면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한국기독교의 나날 바를 진실로 고민했으며, 그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개인임을 간파할 수 있게 해준다.<sup>70)</sup>

#### 4. 결 론

이상으로 본고는 김동리의 <무녀도>와 <울화>, 그리고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기독교 토착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선교학적으로 볼 때 토착화란 기독교가 그 나라의 문화적 종교적 유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파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토착화란 개념을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상황화라는 개념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도 존재한다.

68) 김봉균, 앞의 책, 103쪽.

69)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240쪽.

70) 소재영의 3인, 앞의 책, 130쪽.

김동리의 <무녀도>와 <울화>에서는 기독교와 무교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난다. 기독교를 믿는 옥이와 영술은 어머니이자 무당인 모화와 울화와 대립하고 있다. 이 첨예한 대립은 결국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데, 두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무교를 완고하게 지지하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기독교인인 <무녀도>의 옥이와 <울화>의 영술은 모두 어머니 무당의 칼에 찔려 죽는다. 특히 영술은 성을 회복하고 집안의 장손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시점에서 죽게 된다. 반면 <무녀도>에서 무당 모화는 죽지만 그녀의 죽음의 의미는 생의 구경적 형식이라는 의미로 승화된다. 걸이야기에서 옥이의 기독교 세계는 사라지고 없지만 무교의 세계는 낭이의 그림으로 남아 있다. 또한 <울화>의 경우 무당 울화는 죽지 않는다. 작품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희뿌연 등불’은 하나의 상징적 장치로서 김동리가 완고하게 무교적 세계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김동리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로서 무교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가 한국소설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인 反토착화의 형상화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에서는 우선 무교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가 나타난다. 선교학적으로 ‘극단적 대치’라고 할만큼 작가는 무교를 거짓으로 간주하고 기독교를 진리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습합 현상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참다운 기독교 정신이 이 땅에 착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소설에 나타나는 토착화와 관련된 관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풍습과 관련된 토착화론으로서 작가는 순응론적인 토착화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독교가 수용되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풍습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둘째 참회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빈민층으로 뛰어든 성호를 통해 작가는 진정한 복음은 개인구원이 아니라 사회구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성호의 이러한 실천적인 신앙은 죄의식 문제를 극복하고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일관된 주제의식의 표현인 동시에 한국인의 유랑민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한 지평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호의 빈민 선교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다. 개인윤리적 결단과 실천을 통해 사회구원을 이루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기독교의 사랑을 빈

민선교 현장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상황화 논리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순응론적 토착화론과 상황화의 논리는 작가의 인간주의적 신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기독교날말큰사전, 한국문서선교회, 1999.  
기독교대백과사전 15, 기독교문사, 1980.  
김동리, 율화 외, 한국소설문학대계 26, 두산동아, 1997.  
문장, 1945. 5.  
황순원, 움직이는 성, 문학과 지성사, 1995.

### 2. 저서·편저·역서

- 구인환외, 한국장편소설연구, 삼지원, 1989.  
김봉근, 한국소설의 기독교 의식연구, 민지사, 1997.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윤정, 한국현대소설과 현대성의 미학, 국학자료원, 1988.  
김주연 편, 현대문학과 기독교, 문학과 지성사, 1984.  
류기룡 편, 김동리, 도서출판 살림, 1996.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소개영 외 3인,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 서회, 1990.  
신익호, 기독교와 한국소설,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4.  
이남호·이광호편, 김동리문학앨범, 웅진출판, 1995.  
이동하, 현대소설의 정신사적 연구, 일지사, 1989.  
이상설, 한국기독교소설사, 양문각, 1999.

24 한국문학논총 제 30 집

이재선,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출판부, 1991.

장상·소홍렬 편, 신학하며 사랑하며, 문학과 지성사, 1996.

전호진, 선교학, 개혁주의신행협회, 1993.

조희경, 김동리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한승욱, 한국근대소설과 사상, 집문당, 1995.

한신대학교신학부 편, 기독교와 문화, 한신대학교 출판부, 1988.

3. 논문

예술원논문집 20집, 1981.



<Abstract>

## A Study on the Aspect of Christianity Worldview being indigenized in Korean Modern Novel

Park, Nam-Hoon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aspect of Christianity Indigenization, analyzing Kim Dong-Ri's <Mynyeodo> and <Yeul-Wha>, Whang Soon-Won's <Shifting Castle>. In the context of the missionary the Indigenization means that Christianity is propagated with having good relation to the propagated nation's cultural and religious tradition. In order to consider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spect of reality the word of indigenization could be substituted with that of contextualization.

In Kim's <Muyeodo> and <Yeulwha> we can observe that the Christianity is confronted with Shamanism; Yukyi and Youngsool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re confronted with Mowha and Yeulwha who are their mother and shaman. This confrontation result in the death of two sons, which suggests the author's intention to support the traditional religion-shamanism. Yukyi and Youngsool are stabbed with a knife by their mother-shaman. It is when he met his father again and could participate in a member of family that Youngsool is killed by his mother. On anther hand is <Muyeodo> the shaman Mowha also died but her death means the practice for the essence of life. And in ohter story Yulyi's world of Christiandy ceases to exist, but the world of Shamanism exist on the form of Nangyi's pictures of shaman. In <Yeulwha> shaman Yeulwha doesn't die, furthermore the existence of shamanism os suggested in the ending of this story, the symbolizing the paper lamp. Considering these facts, he can be named the traditional conservative. For is can be said that Kim tried to seek

national identity by keeping shamanism from Christianity propagation. Thus his attitude can be defined as radical anti-indigenization.

We can find that Whang Soon-Won criticize shamanism in <Shifting Castle>. The author consider shamanism falsehood. Contrarily he consider Christinity truth. His attitude can be said to be radical opposite in the context of missionary. The author criticize fiercely the mixing phenomenon of Christinity and shamanism, emphasizing that true Christianity should be indigenized in Korean society. WE can see two ways of indigenization in this novel. Firstly, he presents Adaption Indigenization in rektion to customs; Korean customs should be kept in process of Christianity being accepted and propagated, which shows the author's indigenization being based on humanistic view of God. Secondly, he authot insists not individual relief but social relief, representing Seungho's Poor Missionary can not be interpreted ideological but contextualization to practice Christianity love to the Poor.